



| 탐방 | 삼성테크윈(주) 제1사업장

- 직원들의 화재예방 마인드 구성에 힘써 -
철저한 책임의식으로 3無 사업장
이룩하자

두 번의 화재사고를 겪은 후, 방화관리자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더 이상의 화재는 용납하지 못한다는 각오 하에 '무재해', '무화재', '무질병'의 사업장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삼성테크윈(주) 제1사업장을 부산지부의 추천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이미숙 | 경영기획부 홍보팀

■ 회사현황

경남 창원에 위치한 삼성테크윈(주)는 1977년 '삼성정밀공업(주)'라는 사명으로 설립된 후, 항공기 엔진사업을 시작으로 방위산업 및 정밀기계산업 분야의 첨단 사업영역에서 국가적인 중요 과제들을

담당, 발전시켜 왔다. 1987년 '삼성항공산업(주)'로 사명을 변경한 후 세계 최고속 칩마운트 개발, 국내 최초 와이드본드 및 디지털 카메라 개발, 세계 최초 현미경 겸용 실물화상기 및 합금소재 팔라듐 도금 기술 개발 등 앞서가는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삼



종합방재센터 내부

성테크윈(주)는 전국 종합생산성대회 대상(대통령상)을 비롯하여 장영실상, EISA상, 기술경영대상 및 최고경영자상, 「World Best Supplier Award」, 다이아몬드상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수상한 바 있다.

2000년 현재의 회사명으로 변경한 삼성테크윈(주)는 항공기 사업을 분리한 후 20여 년간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시스템 사업, 반도체 부품 사업, 광디지털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엔진 사업과 방산사업을 기반사업으로 하여 향후 5년 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중 삼성테크윈(주) 제1사업장은 리드프레임과 와이어본드, 칩마운트, 줌·디지털 카메라 및 IMT2000용 광학모듈 등을 생산,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사업과 광디지털 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21C에 부응하는 디지털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방재시설

134,635㎡의 대지에 건물 28개 동이 연면적 75,000여㎡ 규모로 건축된 삼성테크윈(주) 제1사업장은 화재사고 이후 '현장 밀착 서비스로 3무 사업장을 조성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종합방재센터 설립, 첨단 시설을 갖추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종합방재센터는 방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투자하여 설립된 것으로, 이 곳에서는 건물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사항들을 모니터링 및 DVR 기록, 저장할 수 있으며 전기, 방송, 온·습도 조절, 소방설비 원격 기동 및 정보 등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특히 정문과 방재센터에 2대의 화재수신기(AM2020)를 설치, NCS(Network Control Station)를 통해 상호 Back-up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어 방재센터의 시스템 정지 시에도 대비하고 있다. 방재센터 내부 정면의 중앙에는 현재 100인치 대형 모니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가동공장 및 화재위험 지역 27개소에 설치된 CCD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감시, 화재발생에 대처할 수 있다. 또한 동시통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최대 50여 명의 중요 관리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으며, 방화전담요원을 대폭 늘려 매일매일 철저히 관리·점검하고 있다.

삼성테크윈(주) 제1사업장은 이 밖에도 건축물의 방화대책으로 수직피트 층별 구획 및 주요 방화구획 선상의 방화벽, 방화셔터 설치를 통해 화재발생 시 연소확대 방지 및 위험 분리를 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항상 대비하고 있다.

삼성테크윈(주) 제1사업장의 환경안전유니트는 산업 안전, 소방, 작업환경 및 부속의원 등 4개 분야에 총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재전문스텝은 내부 직원 7명, 관리용역사 직원 5명으로 방재 분야를 전담하고 있다. 삼성테크윈(주) 제1사업장의 방화관리자



회사 전경

들은 조그만 실수로 인해 예상치 못한 큰 화재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직원들에게 화재예방 마인드를 심어 주고자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소방교육 및 교육도 여느 업체와 마찬가지로 매월 실시하나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 낸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서, 그 위치에 방화관리자 등 안전스텝이 직접 나가서 현장 특성에 가장 적합한 내용을 소재로 ‘안전사고 예방’, ‘화재예방 및 화재 시 대응요령’ 등을 교육하고, 매주 1회 사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주동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고 및 예방법을 교육자료로 읽기 쉽게 편집하여 전 사원들에게 홍보·교육하고 있다.

“CCD 카메라 설치 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직원들의 항의를 설득하고, 종이컵에 담배꽂초 버리지 않기 운동을 정착시키는 데 걸린 시간만 해도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라고 말하는 방화관리자는 직원들의 화재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재예방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방화관리자들의 노력 덕분에 삼성테크윈(주) 제1사업장에서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전 직원 모두 화재예방을 위해 동참하고 있다.

‘안전은 모든 업무의 출발이며, 모든 사고는 철저한 책임의식 아래 예방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진 삼성테크윈(주)의 방화관리자들은 사내공사 시 도급업체 등록접수 및 작업허가제를 시행하며, 화재위

험 요소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현장 밀착 점검관리로 무화재 사업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과감한 투자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삼성테크윈(주)는 이러한 노력 결과, 지난 2000년 안전부문 ‘KOSHA 2000 인증’을 획득하며 무재해·무화재·무질병의 사업장임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러한 삼성테크윈(주)는 올 한 해동안 소방·방재분야에서 크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는 모든 소방펌프 및 배관 교체, 화재취약지역 자동소화설비 설치율 향상, 공동구/급전실 등 화재취약지구에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자체 소방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방재 전문능력을 향상하고 전 사원에게 소방에 관한 기초지식을 확산시켜 방재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셋째는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꾀하여 방재시설의 완벽한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 협회와의 관계

삼성테크윈(주)는 특수건물에 속하여 매년 본 협회의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본 협회 방재시험연구원의 방재기술실무교육에도 많이 참가한다는 삼성테크윈(주) 제1사업장의 방화관리자들은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화재예방에 관한 마인드를 철저히 심어 주고, 거부감이 들지 않는 화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재를 야기시킬 수 있는 작은 불씨까지도 철저히 감시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고민하는 방화관리자들의 모습이 인상깊었던 삼성테크윈(주) 제1사업장...

이러한 방화관리자들의 노력이 있다면 앞으로 국내 소방업계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짧은 탐방을 마쳤다. ☺